

2024. 3. 19.(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120다산콜재단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장	박재희	02-3278-5720
기획실장	도종현	02-3278-5710
인사팀장	이은미	02-3278-5728
홍보담당자	심지현	02-3278-5712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3쪽

120다산콜재단, 한국의료재단과 '임직원을 위한 종합검진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 재단 전 직원의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 선제적 건강 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원의 삶의 질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
- 재단, "한국의료재단과 함께 체계적 건강관리 통해 직원 근무 만족도 제고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도모 앞장설 것"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이재 이사장, 이하 120다산콜재단)과 한국의료재단(문관식 대표)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선제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3월 18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120다산콜재단은 종합검진 전문의료기관인 한국의료재단이 제공하는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400여 명 임직원의 각종 질병을 진단하여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와 25개 구 행정에 대한 상담 및 민원접수를 일평균 2만여 건 수행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2년부터 악성민원 법적대응 등 적극적인 상담사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의료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근로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종합건강검진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트레스 힐링 솔루션 프로그램 등을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한국의료재단은 2005년에 설립된 이후 총 5개 진료와 20여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SMART 검진시스템을 도입하여 접수, 문진표, 검진과일을 RFID로 접목하고, 검진현황 및 대기 현황을 모니터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신암 PET-CT 운영, 고해상 최신 MRI를 도입하는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기반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질환자 처방 및 치료, 유소견자 3차 진료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전문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의료재단은 120다산콜재단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대상으로 기업 제휴 할인가로 제공하며 검진완료 후 사업장 방문 결과상담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최첨단 의료장비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의료재단 문관식 대표는 “120다산콜재단 임직원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정확한 진단으로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건강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20다산콜재단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생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한국의료재단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에 기반으로 체계적인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 도모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다산콜재단-한국의료재단 업무협약식 사진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좌), 문관식 한국의료재단 대표(우)